

성경적 정의가 요구하는 통일

손 봉 호*

목 차

- | | |
|-------------------|----------------|
| I. 성경적 정의 | IV. 통일에 공헌할 능력 |
| II. 통일의 목적 | V. 종합과 결론 |
| III. 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 | |

I. 들어가는 말

현대인은 자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현대인의 행복과 불행도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다. 옛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연이 주는 소산물을 누렸고 지금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연이 주는 재해로부터 상당히 해방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은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실재는 자연이었다. 이제 실재는 단지 사회적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For most of human history, reality was nature... Now reality is becoming only the social world.)”라고 하였다. 또 기독교계에 많이 알려진 C.S. Lewis는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라는 유명한 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4/5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고 말했고 기독교의 사랑을 많이 연구한 스웨덴의 신학자 A. Nygren은 ‘아가페와 에로스’ 책에서 타자 중심의 아가페에서만 진정한 윤리가 가능하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속의 문제이고 성경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한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는 타자 중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고 뒤에서 더 서술한다.

*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본고는 전남대종교문화연구소 2019년 하반기 협력·통일 시대 종교의 역할 - 화해·평화·통일과 기독교의 역할-에서 기초강연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율법과 사랑의 핵은 행위자의 의가 아니라 이웃의 이익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격렬하게 비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그 시대에 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강요하지만 타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의(義)만 생각했다. 그들은 율법의 목적에 벗어나서 “나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 도적질 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 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도덕군자이고 착하고 올바른 사람인가?” 만 중요하게 여겼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인식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 그리스도의 본질에는 어긋난다.

현대인의 행복 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서로에게 부당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이다. 모든 윤리는 정의로 환원된다. 서로에게 이익을 주면 물론 좋지만 거기에 미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윤리라 부르고 성경은 소극적인 것을 강조했다. 윤리의 핵심인 다른 사람의 이익이 윤리의 목적은 아니다. 비도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은 십계명에서 그것을 가장 강조한다. 윤리와 정의를 연결하는 이유는 윤리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므로 진정한 윤리는 정의로 환원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정의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도 정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가장 철학적, 이론적으로 논의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이었다. Aristoteles의 정의란 ‘동일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to treat the like alike)으로 꽤 유명한 명제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갑과 을이 일을 했을 때 시간에 관계없이 똑같이 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는 근본적으로 뒤집어 지는데 포도원주인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등하게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성경적인 정의이다.

성경적 정의는 고아, 과부, 객,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4-5).”가 정의로 나타난다. 정의에 대한 성경의 이해는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며 합리적이기도 하고 John Rawls는 A Theory of Justice의 Difference Principle of Justice에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the great benefits of the least advantaged)을 도모하는 것이라 한다.

II. 통일의 목적

한국 교회는 왜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아래와 같이 4가지를 말할 수 있다.

1. 동일 민족이니까. 왜 동일 민족은 통일을 해야하나요? 한 민족, 역사, 정서도 같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적으로 이러한 이유는 정당화 할 수 없다.
2.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기 위하여. 이러한 이유는 통일이 되면 많은 이득이 생기고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원하지만 그런데 교회가 나서서 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반대한다.
3.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 이것은 어느 정도 양쪽에 해당되고 정당화되고 기독교의 평화 추구와도 해당된다.
4. 북한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이다. 바로 위쪽에 친척이 있고 역사, 정서가 같기 때문에 선교사를 먼 나라에 보내는 것보다 민족 복음 전파가 쉬워진다.

모두가 가 다 정당하나 1과 2는 다소 이기주의적이고 특별히 성경적이라 할 수 없고 3과 4는 좀 더 성경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으나 일반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III. 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

성경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남북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목적은 ‘정의를 위하여’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아니라 약자인 북한 주민의 의식주, 건강, 자유 등 기본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일 정당성의 이유이다.

즉 ‘우리’를 위한 통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즉 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타자 중심의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한다. 오늘날 전 세계 절대빈곤 인구가 1/10로 줄어들었다.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보면 생활수준이 많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 북중 경계지역인 압록강을 따라 간 적이 있는데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중국은 번쩍번쩍 발전했지만 북한은 초라하고 비참한 실정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하고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들 중 하나인 약자

로서 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이 기독교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통일 논리이다.

기본 인권 사상은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인데, 모든 인간의 평등과 정의의 근거이다. 살아있는 4대 철학자 중 J. Habermas, A. MacIntyre, 유명하지는 않지만 이란 외교관이었던 Said Rajadie-Khorassani는 “보편 인권 사상은 유대-기독교적 전통의 세속적 이해”라고 하였는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를 언급했다. 1948년에 이 보편 인권 선언을 준비할 때 미국의 문화인류학회가 항의 편지를 UN에 보내서 기독교적 관점인 보편 즉 유니버설(Universal)은 이슬람권과 당시 공산권만 제외하고 모두 보편인권선언을 받아들였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라는 것, 우리가 인류에게 공헌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존중하고 장려하고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미 북한 주민의 인권이 존중되고 기본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거나, 북한의 개방 혹은 북한 정권의 민주화 등 통일 이외 다른 변화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국 기독교가 구태여 통일을 추구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잘 살면 통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꼭 기독교적 관점에서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할까에 정당성은 충분하지 않게 된다.

이런 전제는 성경적 정의는 한국 교회가 수행해야 할 기본 임무를 제시한다.

1. 북한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것, 서독 교회는 막대한 액수의 원조를 동독에 보냈다. 보수가 반대하였고 동독 주민을 위해 보내면 동독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많이 가져갈 줄 알면서도 보냈다. 우리도 정부가 반대해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보내야 한다. 내가 받은 상금 뭉땅 아프리카 장애인에게 보낼까 하다가 북한에 보냈는데 그 2,000만 원으로 1,200가구가 6개월 살 수 있다. 가능하면 북한에 보내야 한다.

2.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줄이도록 비판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진보가 주춤하지만, 이런 점에서 나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공격을 받지만, 기독교적인 일관성으로 일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합쳐야 한국 교회가 임무를 다 하는 것이다.

3.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북한에 있는 분들보다는 유리하겠지만 남한 교회가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설명해야 통일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한이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되 특히 성경적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IV. 통일에 공헌할 능력

통일, 정의를 포함해서 한반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통일을 논의 하는 것은 공허하고 시간과 재원의 낭비이다. 과연 우리가 논의한 바를 통해 통일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 ?

한국 교회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여 사회의 신임을 받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사회의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는 정의와 통일을 위하여 지도적인 역할은커녕 어떤 긍정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비참한 상황이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동참하도록 설득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은 돈도 아니고 수도 아니다. 한국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떨어져 있는데 권위를 회복하고 우리가 사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13년 말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19.4%만 개신교를 신뢰하고 카톨릭 36.7%, 불교 35.2%를 신임하는데 개신교는 타 종교보다 월등하게 낮다. 불교사회연구소가 2015년 10월, 19세 이상 일반국민 1,200명을 종교 별 신뢰도 조사, 카톨릭 39.8%, 불교32.8%, 개신교10.2%의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도덕적 파산 상황에서 교단의 연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긍정적 영향력도 없다.

기독교적 신사도, 성경적 신사도를 상실하고 저급한 세속된 높은 자리, 명예를 바라고 연합이 되지 않고, 힘이 없는 이런 상황에 북한에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교리와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복덕방처럼 자기와 관련된 자기 교회, 교단 사람만 세우려고 하는데 북한의 지하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개신교 역사상 한국이 지금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닐까?

대내적으로도 공정성과 정직성이 전제된 상호신뢰가 부족하여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북한이 개방되더라도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락한 교회 문화가 핏박으로 물들여진 북한 교회를 정화가 아니라 오염시킬 위험이 크다.

V. 종합과 결론

통일이란 중요한 과업을 계기로 한국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약자 중심의 정의에 입각해서 통일을 추진함으로써 이 사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북한에 식량,

의약품 등 생필품 원조에 앞장서고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여야 한다.

남북한 사회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양과 윤리에 기반하여 통일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회와 종교는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사회도덕성을 제고하고 사람들의 교양 수준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금씩 손해를 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종교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이고 우선해야 할 일이다. 형식적으로 성도들의 수를 늘리고 돈의 부를 이루는 것은 종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더 타락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적인 신사도와 윤리에 기반하여 교계의 연합을 이룩하며 효과적인 통일활동과 북한 선교를 수행해야 한다. 교양을 갖춘다고 할 때 교양이란 무엇일까?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행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여 북한 (이하)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남한 기독교의 타락한 종교문화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